

# 익산시립예술단 신임 예술감독 위촉

노기환 시립합창단 · 최석열 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 · 공연 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신임 예술감독을 위촉하는 등 시립예술단의 새로운 라인업(line-up)을 완성하고 활성화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 등 2개 단체를 이끌어갈 예술감독 2명을 위촉하고 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진용을 새롭게 구축했다.

새롭게 위촉된 예술감독은 노기환 시립합창단 예술감독과 최석열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다.

이로써 김익주 시립풍물단 예술감독과 함께 '3인의 막강 라인'이 편성돼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연 활성화가 기대된다.

노기환 신임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은 추계예술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석·박사를 마쳤으며 순천시의 광양시, 시흥시 등의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한 바 있다. 전국 합창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40여 회의 수상과 슈베르트 합창 콩쿨 그랑프리 등 20여회 수상을 자랑할 정도로 지휘력과 실력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노기환 예술감독은 연주 형태의 다양화로 관객각층의 시인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합창단을 운영하고 단원의 음악적 기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킬 예정이다.

시립무용단의 지휘를 맡게 된 신임 최석열 예술감독도 전국으로 뻗어가는 시립무용단 육성을 다짐하고 있다.

최석열 예술감독은 성균관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한국무용 석사를 마쳤다. 국립무용단 정단원, 국립경주국악



익산시는 최근 노기환 시립합창단 예술감독과 최석열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위촉하고 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진용을 새롭게 구축했다.

장 예술단 주역 무용수 출신으로 경기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로 활동한 바 있다. 전국신인무용콩쿠르 수석상, 동아무용콩쿠르 은상, 대한민국무용대상 지역부문 대상,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최석열 예술감독은 시립무용단의 뛰어난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그 첫 작품으로 시립무용단의 진가를 발휘할 가장 '시크릿'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시립풍물단 창단부터 이끌어온 김익주 시립풍물단 예술감독은 그동안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분

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전국 농악경연대회 대통령상과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익주 예술감독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시점에 시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신명나는 시립풍물단 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정현을 시장은 "예술감독의 보강 등 지휘라인의 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공연 제공 등 경쟁력 있는 시립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제7회 전국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개최

19일까지 만60세 이상 여성 어르신 참가 접수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제7회 전국 시니어춘향 선발대회가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5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개최가 어려웠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개최 사유를 보면 남원시노인복지관이 특화사업을 고민하던 중 남원하면 춘향이인데 젊은이들만을 대상으로 진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춘향이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자녀를 양육하느라 가정을 부양하느라 젊은 시절 이 루지 못한 자아실현의 꿈을 시니어 춘향이가 되어 이룰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회는 노년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신 노년상 정립을 돕기 위한 대회로, 만60세 이상 대한민국 여성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오는 19일까지이며, 예선과 본선대회 순으로 진행 4월 24일 예



선심사를 통해 16명의 본선 진출이 확정되고 5월 19일 본선에서 자기소개와 장기자랑을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어르신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게 되며, 예선과 본선 모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시상은 대상(상금 250만원), 금상(100만원), 은상(70만원), 동상(50만원), 특별상(50만원) 2명, 우정상(공기청정기), 참가상(10만원) 등으로, 수상자들은 대회 이후 1년 동안 남원시노인복지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물론 남원시 주관 각종 행사에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 '겨울 지나, 봄' 개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비움 수련의 화제' 사군자 기획전시 - 겨울 지나, 봄' 개막식을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가졌다.

4일 개막식에는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전보삼 민혜기념관 관장, 황인홍 무주군수, 송재기 무주군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전보삼 관장의 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혜기념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경기도박물관 등에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자하신위, 후사 김정희의 제자 고담 전기, 조선 말 도화서 화원 양기훈과 서화가지자 독립운동가

인 금선 김진만 등 총 100여 점의 수준 높은 사군자 작품과 인터랙티브 영상 작품 등을 마련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선비정신을 나타내는 사군자의 모습과 태권도인의 백절불굴, 인내, 예의 등의 정신과 닮아 기획했다"며 "수준 높은 전통 미술작품을 통해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군자 기획 전시는 5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문화재단, 임명직 이사 공모

17일까지 신청 접수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17일까지 재단의 사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갖고 활동할 임명직 이사(비상임)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임명직 이사(비상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

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사업계획의 운영,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규정의 제·개정 등 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원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문화예술관련 분야

및 여러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역량을 가진 자다.

임명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제출서류 확인 심사인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2배수 이상을 전주문화재단 이사장(전주시장)에게 추천, 이들 중 이사장이 적합자를 최종 임명한다.

제출서류는 등기우편, 이메일(hwa85@jcf.or.kr)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를 재단 경영지원팀(063-211-9275)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문화재돌봄센터, 지역 문화재 돌봄이 육성 실무교육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는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 강화 및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돌봄센터는 한옥특성화캠

퍼스 전북대학교 고령캠퍼스에서 우리 지방의 문화재를 정통적으로 지키고 돌보기 위한 실무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부문별로는 석공과 미장, 기와, 조경 등 문화재를 돌보는데 필요한 분야별 교육이 진행

됐다. 실무교육은 문화재는 훼손되면 다시는 복원되지 않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지도하고 교육생 중 중견 기술인들의 주도로 실시했다.

특히, 문화재돌봄센터는 2년 연속 문화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서 우리나라 단체로는 가장 많은 수의 문화재수리기능사 합격자를 배출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수 공예상품 선정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최근 전주시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전시관 입점 공예품 12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주공예품전시관에 따르면 '고향사랑'의 지자체 답례품 등록을 위해 지역 입점 작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답례품은 온라인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흥사랑e음(lovegohyang.go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무형문화재 △이신임 낙죽장의 '낙죽 황철합죽선' △윤규상 지우산장의 '한지파라솔' △방화선 선자장의 '더리선'을 비롯, 공예

작가(업체)의 △경추베개 △한지스탠드 △천연염색스카프 △순자수노트 △전주드림캐쳐 △눈썹질책 △안경걸이 △소주잔 △나무노트 등 총 12점이 선정됐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재단 원장은 "선정된 답례품은 지역 무형문화재 장인과 입점 공예인의 우수 작품들로, 지역 대표성과 인지도, 품질과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기부자들에게 우리 지역의 우수한 공예상품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